

# 구세주가 나오면 반드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

☞ 5면, 6면, 7면에 설교말씀 전문(全文)을 게재

찬송:  
-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 내 영혼의 그옥이 깊은 데서  
-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말씀:  
(이슬 성화 사진을 보여 주심) 1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있는데 1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린다면 이제그대로 완성자가 아니어서야 여러분들이 이제그대로 완성자가 아니면 이제그대로 대부분 은혜를 받았다가 한 3년이나 이제그대로 3년 반 정도면 대개 넘어지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사람은 11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은혜가 내리고 있는 걸 보아 이제 과연 완성일까? 미완성일까? 완성자죠?

그런고로 이제 오늘날 완성자를 만나고도 완성자를 몰라보고 이제그대로 완성자를 만나고도 완성자의 귀중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말로 그 사람은 이제그대로 바보가? 이제그대로 바보가 아닐까? 바보죠?

이제그대로 오늘날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한 학문을 논하고 있는 거죠? 한 학문을 논하고 있어요? 새 학문을 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영역, 알지 못하는 세계의 것을 정확하게 논하고 있어요? 근사하게 논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논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이슬이 안 내린다는 치더라도 이제그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완성의 학문을 논하는 걸 보아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희미해요? 너무나 확실하죠? 그런고로 이제그대로 오늘날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이 세상에는 종교가 없었다, 학문이 없었다 할 정도는 이거는 굉장히 차원 높은 완전한 학문을 논하기 전에는 새로운 완전한 학문을 논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 물질 자체가 영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 세상에 이제 굉장히 이제그대로 세상에 많은 것을 안다고 하고 이제 새로운 과학을 발명을 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학문이 없었다, 종교가 없었다.” 하는 말을 이 사람이 이제그대로 자신 있게 논해요, 자신 없게 논해요? 자신 있게 논하죠? 이 사람은 이 세상의 학문,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정확하게 학문이 아닌 것을 논해? 안 논해? 또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의 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증거를 대면서 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그대로 분명히 이제그대로 이 세상에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 속에서 나와 있는 학문이고 종교가 잘못돼 있다면 학문이 잘못된 학문이야? 바로 된 학문이야? 잘못된 학문이야? 그런고로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학을 논하는 것인데 바로 이제 신에 대한 정도도 모르고 영에 대한 정도도 모르면서 종교를 운운한다는 것은 바로 이건 넌센스야? 넌센스 아니야? 넌센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고로 오늘날 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그대로 마음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바로 마음은 피 작용이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논하고 있으면서 이제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피의 작용이 마음 작용이라는 것을 알면서 마음은 영이라고 하면서 피가 영이라는 것을 알아? 몰라? 그모르는 걸 보면 한 치만 넘어가면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이고로 이 세상은 미개한 세상이야? 이 세상은 발달한 세상이야? 미개



메시아(彌賽亞, Messiah) 조희성님  
△ 본문 말씀을 설교하시는 당시에 촬영한 모습

한 세상이죠?

한 치만 건너가면 모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어둠의 영이요, 이제그대로 나라는 의식 자체가 바로 이제그대로 무지의 영이 되는 고로 그런고로 나라는 의식에 의한 생각은 바로 한 치만 건너가면 이제그대로 알 수 없는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 치만 건너가면 모르는 것을 이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치를 건너가고 두 치를 건너가고 세 치를 건너가고 열 치를 건너가고 백 치를 건너가고 천 치를 건너가고 만 치를 건너가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돼서 그럴까? 마귀의 영이 돼서 그럴까? 하나님의 영이 돼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제 듣고 보면 쉬워? 안 쉬워? 듣고 보면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하죠? 마음이 영이라면 마음 작용이 피 작용인고로 피 자체가 영이요, 피 자체가 영이라면 몸 자체가 영이고로 그런고로 물질 자체가 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고로 그런고로 유물론을 주장하고 있는 바로 공산주의의 핵심 논리를 여지없이 부수버렸어? 그냥 놔

뒀어요? 부수버렸죠? 이제그대로 유물론을 이제 여지없이 부수버릴 정도면 바로 이제 이 세상에 학문이 전부 이제 부서지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이 세상 학문이 전부 부서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학문이 물질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그래? 이제그대로 물질이 없고 영혼만 있다고 그래? 물질이 영혼이요, 영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논해? 안 논해? 과학적으로 논해. 이제그대로 비과학적으로 덮어놓고 믿으라고 예수처럼 그런다면 이제그대로 인정을 안 해도 좋지만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이 세상 만물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논해? 안 논해요? 논하죠?

### 중성자 속에서 나오는 빛

그런고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하나 하나가 모여서 물질을 형성하고 있는데 원소 하나 하나를 분석을 한다면 바로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가 뱅뱅뱅뱅 돌아가? 안 돌아가? 여러분들, 다 공부한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런고로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

로 뱅뱅뱅뱅 돌아간다는 건 알지만 바로 그게 왜 돌아가느냐? 하는 한 치만 건너가면 과학자들이 거기까지 생각해 본 과학자들이 있어? 없어? 한 치만 건너가면 몰라. 왜 그러냐면 그게 나라는 의식이 마귀인 까닭이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가 이제그대로 핵과 중성자를 중심으로 뱅뱅뱅뱅 돌아가는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 그게 그냥 돌아간다면 말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미개한 사람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 분명해? 안 분명해? 분명한 거죠? 마귀는 어둠의 영이고로 한 치만 건너가면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어둠의 영이고로 그런고로 무지의 영이고로 알 수가 없지마는 이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빛의 영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고로 그런고로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가 중성자와 핵을 중심으로 뱅뱅뱅뱅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제그대로 핵과 중성자 속에 있는 생명의 물질로 말미암아 생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에 의해서 영어로 말하면 에너지에 의해서 돌아가는 에너지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을 논해? 안 논해? 어느 과학자가 반론을 제기할 자가 있어요? 반론을 제기 못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학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그대로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지혜를 이제 따라올 수 있을까? 따라 올 수 없을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그대로 오늘날 이제그대로 중성자 속에서 나오는 빛이 있는데 이제 그 빛이 바로 중성자 속에서 나오는 빛이 이제그대로 남의 두께를 이제 100억 광년을 초과하고 나가는 그러한 이제그대로 빛이 중성자 속에서 나온다고 저 미국의 폴

롬비아 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원용 박사, 우리 한국 교포 박사가 83년도에 와서 서울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할 때에 말을 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그대로 이 사람이 원자핵을 군인 시절에 이제 원자 원자를 번역을 해가지고 장병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 고로 그런고로 원자탄이 폭발을 하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선이 이제 거기서 방사되는데 이제 알파, 베타, 감마선 중에서 가장 투과력이 강한 그 감마선에 의해서 사람의 몸을 뚫고 지나가면 바로 사람의 세포가 전부 이온화가 돼서 재가 돼버리는 고로 즉사해서 죽는 것을 이 사람이 모든 장병들에게 논하면서 아무리 투과력이 강한 감마선이라 할지라도 이제 납은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 그런고로 그 반공호를 납을 1mm 두께로 뒤집어씌워 놓으면 그 방사선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고로 납으로 씌워져 있는 반공호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희생을 안 당한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강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그대로 이 중성자속에서 나오는 빛은 바로 남의 두께가 백억 광년의 두께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라면 바로 이제그대로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건데 100억 광년이라면 바로 여러분들 숫자로 셀 수 있어요? 숫자로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이제그대로 그 이원용 박사는 이제 그것을 굉장한 이제 무한대에 가까운 그러한 것을 논했지만 언젠가는 이제 그렇게 뚫고 지나가다가 남의 두께를 100억 광년을 뚫고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뚫고 지나가지 못하겠지 하고 인간의 생각, 마귀의 생각으로 했지만 사실은 그 이원용 박사가 말한 것이 정확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틀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틀렸다고 그랬죠?

6면에 계속



라준경의 테마가 있는 노래 / 1. 정선아리랑, 2. 장기타령



아버이 날 2부 행사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 \_ 이승우



워십댄스 『기쁜 날』  
본부제단 여성회 \_ 김선애, 최종열, 신순이, 이근식, 김정애, 변숙자



합창 \_ 무궁화합창단 지휘/박철수, 반주/박인숙  
『연애나 아름다운 시온의 빛이여』



관현악 \_ 무궁화관현악단 지휘/김성우, 찬송/전성도  
1. 어머니, 2. 구세주 찬가



하모니카 연주 \_ 김원찬  
1. 백조의 호수 『정경』, 2. 우리의 모든 형제



지휘자 김성우 선생님이 백조의 호수를 하모니카 연주한 것에 대한 칭찬과 애틍 요청